

# 내년도 예산편성 시민의견 듣는다

###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시청 홈페이지서 설문조사 참여 당부

군산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본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시민설문조사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로서, 설문조사 내

용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안된 의견들은 관계부서에서 시급성, 공익성, 실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시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제6기 군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여줄 군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더불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해 오는 9월 4일까지 위원을 모집한다.

제6기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분과별 위원회 및 총회 등 정기회의를 통해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11월 중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가 의회에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예산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의 다양한 의견이 매우 소중하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지난 4월 전북도 주관 '2017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이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 군산시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 가속도

지난 4월 전북도 주관 '2017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이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군산시가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7억4000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에서는 이번 경관디자인 사업을 통해 군산예술의전당 지하차도 옆 옹벽과 수송로변 새들공원의 옹벽, 예술의전당 앞 보행로 등 총 3개

소에 고은 시인의 민인보, 채만식의 소설 탁류 등 군산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간에 어둡고 삭막한 보행로에 CPTED(범죄예방 환경디자인)기

법을 적용하는 등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테마가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민참여형 경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 청년몰 '물랑루즈' 명소로 발돋움

### 기자간담회서 발전비전 등 설명

### 내달 1일~3일 서머 맥주축제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추진사업단이 최근 공설시장 청년몰 '물랑루즈'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 청년상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고 청년몰의 향후 발전비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

공설시장 청년몰 '물랑루즈'는 근대 유럽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였던 물랑루즈를 콘셉트로 출발해 군산시가 간직한 근대역사 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물랑루즈'에는 젊은 상인들이 15개의 먹거리 점포와 4개의 체험 공예점 등을 열고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월별 프로모션 진행과 문화

예술 공연, 온라인(SNS) 이벤트, 청년몰 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소규모 문화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수진 청년몰추진사업단장은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 상인들이지만 의욕과 열정만큼은 베테랑 못지않을 것"이라며, "청년 상인들의 자체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만들어 가며 노력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공설시장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데이트 서머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첫째 날인 1일 8시부터는 윤도현 밴드의 초청공연이 무료로 펼쳐지는 등 여름의 끝자락에서 다양한 이벤트들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주한미군 대상 시정설명회 개최

### 신임장교 30여명 참석 지역탐방 등 한·미간 우의 도모

군산시는 28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정설명회에는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비행단장을 비롯한 신임 장교 30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군산시청을 방문해 시정계획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근대역사박물관과 새만금현장, 지역 업체인 롯데주류를 탐방하는 지역 방문의 시간을 가졌다.

문동신 시장은 "시정설명회를 통해 주한 미군이 우리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한·

미간 변화없는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서는 미 공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매년 관내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일원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설봉사를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한·미간 우의를 도모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 익산시민대학 하반기 강좌 운영

### 9월 13일~10월 25일 한달여간

###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익산시 평생교육의 요람인 2017 익산시민대학 하반기 강좌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습리문화예술회관에서 총4강좌로 운영된다.

하반기 첫 강좌는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서필환 성공사관학교장, 두 번째 강좌는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이라는 주제로 미래인성개발연구소원 강복환 원장이 시작을 알린다.

세 번째 강좌는 사람의 감정을 편안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로 대중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용해원 시인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홍보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익산시민을 찾아온다.

시 관계자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풍성하게 준비한 하반기 익산시민대학 강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으로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

## UIA 국제전시회 한국대표 영예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사진)가 UIA(국제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2017 바이오 디지털 예술 & 건축전'에 참여하는 한국 대표건축가 5인에 뽑혔다.

8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3일까지 심포지엄 및 워크숍, 전시회 등으로 꾸며진 2017 서울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바이

오 디지털 예술 & 건축전'은 1, 2부로 나뉜 가운데 1부의 파리와 학관, 전문가전, 젊은 작가전, 수상전에 이어 2부에서 세계로 향하는 한국건축전이 열린다.

박기우 교수는 한국의 대표 건축가로 함께 뽑힌 4명과 2부에 참여하며, 세계로 향하는 '한국 건축전'을 통해 자연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이슈를 창의적으로 실



현하는 한국 현대건축의 현주소와 전망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청 대평홀에서 국제전시 오픈팅 및 심포지엄을 가진데 이어 9월 13일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바이오 디지털 예술 & 건축전'은 UIA(국제건축가협회) 행사의 일환으로 3년마다 파리와 서울에서 열리고 있으며, 유명 건축가

들의 작품전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건축을 소개하고, 이를 서울과 파리의 건축학도들에게 교육하는 국제워크숍으로 자리하고 있다.

박기우 교수는 "중요한 국제건축 행사에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작가로 뽑혀 한국 건축계의 메인 스트림으로 가는 중요한 길을 트는 계기가 됐다"며, "연구실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축학과 학생들이 학부 졸업에 이어 바로 일본 및 미국의 대형설계사무소 취업 기회도 주어져 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